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첫 화물자동차《승리-58》형 제1호

공화국의 력사에는 덕천자동차공장(당시)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낸 뜻깊은 사연도 깃들어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후 인민경제복구건설시기가 끝나고 제1차 5개년계획 수행에 들어서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이 절박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를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덕천자동차공장에 주시였다.

첫 화물자동차《승리-58》형 제1호

자동차부속품공장으로 발족한지 불과 1년밖에 안되는 덕천자동차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 과업을 받아안고 흥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자동차부속품 하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이 땅에서, 더우기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되였던 공화국에서 전후 5년만에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생각하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덕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동차시제품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난관과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자동차생산을 위해 응당 있어야 할 특수기계들과 전문설비들이 갖추어져있지 못하였고 한장의 설계도면도 없었다.

자동차를 만들어본 사람도 없다보니 처음에는 수천종의 부속품을 생산하는데 어떤 기술장비가 필요한지조차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의 현 존설비와 기술로써는 자동차를 생산할수 없다, 조선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하였다.

이러한 때인 주체47(1958)년 10월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공장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자동차생산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면서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보자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맨주먹으로 연길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일제놈들을 족치던 그 정신으로 투쟁하면 능히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수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자동차를 조선사람이라고 왜 만들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받들고 자동차를 대량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덕천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어떤 난관과 애로가 앞을 가로막아도 항일유격대원들이 야장간에서 폭탄을 만들어내던 그 정신으로 반드시 자동차를 생산해낼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이들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짓부시고 자동차생산에 돌입하였다. 설계도면은 없었지만 자동차를 뜯어놓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부속품을 하나하나 깎아나갔고 철판을 망치로 두드려 차체를 만들었다.

조립하다가 부속품이 맞지 않으면 또다시 깎았고 그래도 안되면 열번, 스무번이라도 고쳐깎고 두드려서 끌까지 해내고야말았다. 이들은 3 000t프레스가 없이는 도저히 차체를 만들수 없다는 의견을 대담하게 물리치고 파고철을 모아 400t원감속프레스를 만들어 차체를 다량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이런 백절불굴의 투쟁과정에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시작한지 40일만에 첫 화물자동차《승리-58》형 제1호를 만들어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들이 만든 화물자동차를 보시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나라의 공업발전과 기술혁명에서 큰 사변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화물자동차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위력을 시위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로 력사에 아로새겨졌다.

본사기자 김춘경

세상에 자랑높은 국어-조선어

국어는 해당 나라 인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적인 교제수단으로 사용하고있는 언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어는 조선어이다.

지금 세계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수십개의 국어(또는 국가공용어)를 쓰고있다.

이것은 수십개의 나라만이 자기의 독자적인 국어를 가지고있고 이여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국어를 사용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자기의 독자적이고 훌륭한 언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다.

조선어는 그 우월성과 유구성, 순결성에 있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우수한 언어이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조선땅에서 기원하여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조선어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와 함께 발전풍부화되여왔다. 바로 여기에 조선어의 단일성과 유구성이 있다.

조선어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언어체계와 구조가 발달되고 아름답게 세련되여 있다.

조선어는 류창하며 높고낮음과 길고짧음이 있고 억양도 좋으며 듣기에도 매우 아름답다.

조선어는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다.

특히 발음이 매우 풍부하며 례의범절도 똑똑히 나타낼수 있다. 또한 조선말토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달된것으로 하여 치밀한 문법적의미를 정확히 표현할수 있다.

조선어는 또한 자기의 고유한 민족글자를 가진 우수한 언어이다.

지금 지구상에 수천개의 언어가 있으나 그가운데서 자기의 말과 함께 고유한 글자를 가지고있는 언어는 많지 않다.

훈민정음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글자로서 15세기에 창제된 매우 발달되고 우수하면서도 독특한 문자이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기때문에 그 원리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글자를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리하다.

세계언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높이 평가하는 훌륭한 언어 조선어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찬란한 민족문화를 창조할수 있었고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계속 이어올수 있었다.

조선어의 기준은 평양문화어이다.

어떤 민족어나 방언의 차이는 다 있으며 일부 민족어들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국가적인 단일한 언어교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있다. 그러므로 국어제정에서 언어기준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평양문화어는 인민적인 문풍을 본보기로 하여 민족어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성이 집대성되고 현대적으로 세련된 조선어의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

국어-조선어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으며 인류문화발전사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조선어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랑이다.

본사기자 김진혁

수자중시의 기풍으로

경제의 수자화는 모든 경제부문을 정보화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계산을 통해 경영활동을 효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수자경제발전을 지향하고있다. 《오늘 세계는 수자경제사회에 들어섰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견해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수자를 중시하는 사회적기풍이 확립되고있다. 어느 단위에서나 경영활동을 과학적타산과 수자계산에 기초하여 효률적으로 깐지게 해나가는것이 생활화, 습성화되고있다.

얼마전 원산구두공장을 찾았을 때였다. 우리와 만난 한 직장장은 《오늘 하루계획을 119.658%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힘썼더라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했건만 소수점아래 세자리수까지 따져가며 자신을 질책하는 그에게 그러니 120%는 수행한셈이라고 말하자 그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는겁니까. 소수점아래 세자리수지어 다섯자리수일지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그 작은 수자들도 우리 공장 사람들이 깨끗한 량심과 땀으로 새기는것인데 어떻게 반올림으로 더 불쿨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문득 사출작업반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왔다. 지난 시기 구두창생산에 염화비닐 100kg당 200g정도의 수입산 발포제가 리용되였다고 한다. 결국 500 대 1이라는 량의 수입산자재가 첨가되군 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는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창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수입산발포제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구두창의 무게를 15g 더 경량화할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구두창 한개당 15g의 자재절약예비를 찾아낸것으로 된다. 티끌모아 큰 산을 이룬다고 15g이라는 수자는 비록 작아도 그것을 모으고 합치면 나라의 큰 재부가 되는것이다.

이런 절약의 수자, 증산의 수자들이 합쳐져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물리치는 승리의 시간표, 행복과 번영의 시간표가 된다고 원산구두공장 직장장은 말하였다.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은 지난 6월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에도 느낄수 있었다. 그때 한 작업반장을 만나 하루 모내기실적을 묻자 그는 3.06정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소수점아래 수자를 정확히 적어주십시오.》라고 곱씹어 말하는것이였다.

수십정보의 논을 다루는 작업반에서 0.06이라는 그리 커보이지 않는 수자를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가?

그 생각을 넘겨짚은듯 작업반장은 얼마전 농장적인 새땅찾기총화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그날 작업반실적을 300여평이라고 대답한 그에게 농장일군은 《정확히 300평하고 얼마요?》하고 되물었다. 20평이라는 대답을 듣고난 그 일군은 한평이라는 수자는 작지만 나라의 쌀독은 바로 그 한평한평의 땅에 의해 채워진다고, 한개 작업반에서 20평이면 적어도 낟알이 40kg, 5개 작업반을 합치면 농장적으로 200kg이나 된다고 말하였다는것이다.

300여평과 320평, 례사롭게 대할수 있는 수자였지만 그것은 자기 일터 나아가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가르는 시금석인것이다.

이처럼 수자를 중시하며 구체적인 타산밑에 깐지게 일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취재길에서 많이 만날수 있었다.

주체철용광로의 생산성을 0.0001%라도 더 올리기 위해 피타게 탐구해가고있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 자재소비량을 kg이 아니라 g으로 엄격히 따지고 0.01%라도 초과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건당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절연물생산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고있는 안주절연물공장의 종업원들, 비료시비량, 물소비량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한g한g 깐깐히 따져가며 일해가는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일군들, 과학적인 타산과 치밀한 계산으로 도안의 자력갱생기지들을 날로 활성화시켜나가고있는 강원도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

기업체들이 효률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수자화하는데 맞게 경제지도기관들에서도 경제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최량화, 최적화의 원칙에서 경제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계획화사업에 경제수학적 모형, 선진적인 프로그람을 받아들이고 설계와 생산, 건설의 모든 공정들이 수자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진행되도록 엄격한 체계와 질서를 세우고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서 경제의 수자화가 가지는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있다. 내각의 한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수자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는것은 단순히 수자적인 장악과 계산, 분석을 통하여 모든 사업을 정량적으로 진행하자는데만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의 공업을 수자를 중시하는 공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최단기간에 경제강국건설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자는데 있다.》

본사기자 홍범식

-나래도자기공장을 찾아서-

비약의 나래펴고 세계로

최근 《나래》위생자기제품들이 소비자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색과 형태, 실용성과 편리성 등으로 하여 나래도자기공장제품들이 하나같이 좋다고 말하군 한다. 그 소문에 이끌려 취재의 발걸음을 나래도자기공장에로 이어갔다.

공장구내에서 박성일부원이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원료작업반에 들리였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고있었다.

이어 기자는 모형작업반에도 들리였다. 모형에서 형타가, 형타에서 제품이 만들어진다. 그런것으로 하여 모형제작공들은 각종 위생자기모형들을 기술적요구대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모형을 만드는데 쓰는 석고를 자체로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있었다. 그리고 제진장치와 배풍장치도 제힘으로 만들어 설치하여 깨끗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소성로에 반제품을 넣는 대차, 유약철분제거장치, 작업승강기, 압축기 등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도 공장실정에 맞게 만든것들이였다. 공장에서는 위생자기생산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소성로를 설계제작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었다.

기자를 안내하며 박성일부원은 《뭐니뭐니해도 제힘이 제일이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면서 주목을 끈것은 공장의 기업전략, 경영전략이였다. 이곳 일군들은 있는 로력과 원료, 설비로 제품의 질을 높이고 량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최량화, 최적화에서 찾았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생산건물의 1층과 2층에 소성로들을 배치하고 모든 공정이 련속적으로 맞물리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생산면적을 훨씬 줄이고 소성과정에 나오는 폐열로 제품건조와 겨울철 작업장온도를 보장할수 있어 여러모로 좋다고 한다.

그리고 설비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제품생산주기를 최대로 단축하고 로력과 자재, 동력을 극력 절약하고있었다. 종전에는 도자기원료인 니장을 바께쯔로 날라다 형타에 부어 제품을 성형하던것을 작업대에 설치되여있는 모형틀에서 발브만 열면 니장이 자동적으로 형타에 주입되게 개조하였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는데도 큰 힘을 넣고있었다. 연마와 건조공정을 거친 반제품에 유약을 입히는 작업장에 들어서니 시유공들이 소성과정에 분무한 유약이 어떻게 변화되겠는가를 타산하면서 분무작업을 하고있었다.

도자기의 질은 성형공들과 시유공들의 기능에 크게 달려있다. 성형공들의 기능이 낮으면 제품에 기포가 생기고 정결도가 떨어지게 된다. 도자기는 소성을 하고나면 수정이나 보색을 할수 없기때문에 시유공들의 기능이 낮으면 도자기의 질을 높일수 없게 된다. 공장에서 생산한 위생자기제품들의 질이 높은것은 성형공, 시유공들의 기능이 높기때문이였다.

실험실에서는 제품의 기본원료인 니장의 리상적인 배합비률을 확정하고 유약을 만들고있었다.

리향미실장의 말에 의하면 유약에 따라 소성한 도자기의 물흡수률과 백색도, 정결도와 광택 등 제품의 질적특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실험공들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질좋은 유약을 만들어 제품의 질을 담보하고있었다.

공장에서는 소성공정도 자동화하여 리상적인 소성온도를 보장함으로써 제품실수률을 높이고 제품t당 에네르기소비량을 훨씬 낮추고있었다.

돌아볼수록 모든것을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 이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풍으로, 습벽으로 되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기자와 만난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의 한쪽 나래가 자력갱생의 정신이라면 다른 한쪽 나래는 과학기술이다. 이 두 나래를 활짝 펴고 위생자기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겠다.》

본사기자 황금숙

과학기술열풍속에 높아가는 제품의 질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서-

대중체육열기가 날로 더욱 높아가는 요즘 사람들속에서 《대성산》상표를 단 체육기자재들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들의 가지수도 늘어나고 질도 현저히 높아지였다.

청춘거리의 자그마한 야산기슭에 아담하고 정교하게 들어앉은 평양체육기자재공장.

건물외벽에 부각된 《대성산》상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이곳 공장의 지배인이 반겨 맞아주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찾은 제품견본실에는 여러가지 형태와 크기, 색갈의 《대성산》체육기자재들이 종류별로 진렬대들에 꽉 차있었다.

종목별에 따르는 선수용가방, 문지기장갑, 권투장갑, 각종 보호대, 여러 종목의 그물, 정구공, 축구공, 배구공…

다양한 체육기자재들을 바라보느라니 이런 훌륭한 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 종업원들을 만나보고싶었다.

생산현장으로 들어서니 실감기계, 가죽쪽불임기 등 공생산에 필요한 여러 기계들이 늘어서있고 그앞에서 종업원들이 작업에 열중하고있었다.

실감기기계앞에 류달리 눈길을 끄는 장치가 있었다. 기자의 시선을 감촉한 한 종업원이 《저 이동식풀실장치가 겉보기에는 별치 않아보여도 큰 역할을 한답니다.》라고 말하며 알기쉽게 설명해주었다.

고무공내피에 실감기를 진행할 때 풀통을 통과한 실로 감으면 내피의 강도도 보장하고 내피와 가죽사이를 고착시켜주는 등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것이였다. 오늘날 공들의 질이 올라간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다름아닌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한 평범한 로동자들의 기발한 착상이라고 지배인은 종업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장을 잘 알려면 과학기술보급실도 돌아보아야 한다며 거기로 이끌었다.

기자는 과학기술보급실의 운영일지를 펼쳐보았다. 월별, 주별, 일별운영계획이 반영되여있고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의 강의참가정형도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지배인은 《이 동무들이 원격교육대학 학생들입니다.》라고 말하며 명단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대부분인데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고있다고 한다.

이런 과학기술열풍속에 늘어나는 질좋은 새 제품들마다에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이 공장종업원들의 성실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제품검사실과 제품창고 등 공장의 곳곳을 돌아보고난 기자에게는 공장의 모든것이 새롭게 안겨왔다. 이곳 종업원들속에서 세차게 일어번지는 과학기술열풍이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체육열풍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확신했다.

본사기자 김철

주소 :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